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1/23 월요일****아침의 누림****엡 6:24**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1:1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엡 1:2-4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엡 3:17-19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벤전 1:3-4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4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 37:31

31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렘 17:7-8

7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8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은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린다(엡 6:24).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려면,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으며 사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은 참되고 진실하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7 장, 609-61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1 장 4 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다음에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랑, 곧 상호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린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 장, 46-47 쪽)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사랑 안에서'가 언급된 곳은 1 장 4 절이며, ... 이 절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수식하거나, 5 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을 수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어 흠이 없게 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기회를 드림으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동역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력하시지만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서 그분과 동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결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수 없다.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도록 그분께 최고의 기회와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 사랑의 상태가 된다.

신성한 사랑은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님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 곧 신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합병된 신성한 생명으로 구성되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 진실로 "주님, 저는 전적으로 부패함이 없는 상태나 상황 가운데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자신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즉 주님의 계획과 선한 기쁨과 갈망과 경륜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가 다음으로 언급된 곳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3 장 17 절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고전 3:9). 하나님의 경작지인 우리는 성장하기 위하여 뿌리를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건축물인 우리는 건축되기 위하여 터를 잡아야 한다. ... 믿는 이들이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뿌리를 내리고 건축을 위하여 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사랑의 상태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상태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우리의 체험이 확증해 주듯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상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과 건축을 위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된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터를 잡으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타고난 경향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한 “주님, 제가 저의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마음의 갈망과 계획에 따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1 장, 551-5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7 장

1/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4:2, 15-16

2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딤후 1:17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딤후 1:10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고전 15:42, 52-54

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52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53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일 4:7-8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 장에서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가 세 번 사용된다. 2 절은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라고 말한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는 것은 몸의 하나(3-4 절)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인성에는 다른 사람, 특별히 말썽 많은 사람들을 짊어질 능력이 없다.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생활 안에 들어와서 신혼의 기간을 체험한다. 이러한 기간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짊어지는 것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보통 빨리 끝난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말로 의도치 않게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교회생활 안에 남아 있으려면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돌본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판받았다 (고후 12:16).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짊어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성한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관심하지 않고 그러한 비판을 빨리 지나칠 것이다. 서로를 짊어지는 길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1 장, 554-55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에서 ‘사랑 안에서’를 사용한 다음 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4 장 15 절이다.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재인 것과 참인 것을 붙잡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따르면, 참이고 실재인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다. 그러므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사랑으로 주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

에베소서 4 장 16 절은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몸을 자라게 하여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될 수 있게 한다. 교회가 단지 회중이나 모임으로서 건축되지 않고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건축되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신성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지체들을 포함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에베소서 5 장 2 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사랑은 타고난 사람의 사랑이 아닌 신성한 사랑이다. 우리는 신성한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즉 신성한 사랑 안에서 살고 행동하며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엡 6:24)라는 축복으로 결론짓는다. 우리는 거친 방식이나 이기적인 갈망이나 타고난 선한 의도로 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되며, 몸의 하나를 위해 서로를 짊어지고, 참된 것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한 하나의 유기체인 몸

안에서 연결되고 짜이며 함께 건축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패함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1 장, 555-5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1 장

1/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갈 6:15

15 이것은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딤후 1:7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골 2:9

9 신격의 모든 총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자와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요일 4:16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6 장 24 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1 장 1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디모데후서 1 장 10 절에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 장은 부활 안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50-53 절).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창조물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은 썩는다. 이것은 로마서 8 장으로 입증되는데, 이 장에서 우리는 창조물 자신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음을 본다(21-22 절). 옛 창조물에 속한 모든 것이 썩고 있다. 오직 새 창조물만이 썩지 않는다. (장로 훈련,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6 장, 124-1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6 장 24 절은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총결이다. ... 그리스도께서 부패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부패하지 않으며, 1 장부터 6 장까지에 언급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항목들이 부패하지 않을 것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패하지 않을 것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옛 창조물이 아닌 새 창조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아들의 구속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의 도장 찍음과 보증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그분의 지극히 큰 능력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부활하게 하고 하늘에 앉힌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많은 때 우리는 부패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을 타고난 방식으로, 곧 옛 창조물에 속한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돈을 더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것은 부패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재물을 드리는 것에서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마 6:3). ...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은 가능한 한 은밀해야 한다(마 6:4, 6, 18).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을 탐내는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왕국 백성은 그들의 영을 따라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행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비밀하고 감추어진 신성한 생명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마태복음 6 장 4 절에서 주님은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새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형제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어서 간증한다. 그의 간증에 ‘아멘’이 많을 때, 그는 영광스럽게 느낀다. 이것은 옛 창조물 안에 있는 것이므로, 부패함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는 간증할 때 반드시 십자가에 머물러야 한다. 간증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만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부패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그분께서 내주하시는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패하는 것이다. (장로 훈련, 6 권,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6 장, 125-1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5 년, 2 권, 애너하임의 다양한 주일 집회들, 영문판, 52-55 쪽

1/26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계 2:4-5

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고후 11:2-3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막 12:30-31

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1 둘째가는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요 21:17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 6 장 24 절에서 한 말은 장차 일어날 문제의 징조를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 2 장 2 절부터 5 절까지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나타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랑이 쇠퇴하려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에베소서 6 장 24 절에 있는 결론의 말은 은혜가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 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들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었다(5 절). 등잔대의 빛은 생명(생명은 곧 은혜임)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주님께 의해 옮겨지는 것은 그들이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빛, 곧 은혜의 빛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두 절에서 우리는 에베소의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느낌을 볼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거듭 ‘사랑 안에서’라고 말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사도는 끝맺는 축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에베소서에서 본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생활과 책임, 22 장, 418-4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린다. ... 에베소서에서 계시된 주요 요점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이다. 몸의 방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고, 아내의 방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실패했다. 바로 이러한 실패가 역대로 교회가 실패한 근본 원인과 주된 이유이다(계 2-3 장). (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5 장, 300-301 쪽)

바울은 현명했기 때문에, 교리에 관해 유대교도들과 다투지 않았다. 그 대신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들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얼마나 놀라운가! 고린도후서 11 장 2 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며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는 때때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진다. 우리가 메시지를 몇 쪽 읽고 나면, 우리 안에는 주 예수님을 향한 부드러운 느낌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귀하신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학적이고도 교리적인 생각은 복잡해서

삼일성이나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양태론에 대해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라이프 스타디》의 어느 한 메시지의 일부를 읽고 나면, 다시 한번 신랑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우시고 귀하신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 주 예수님. 사랑스러운 신랑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회복으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한다. ... 유대교도들은 의문을 일으키지만, 진정한 사역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오늘날의 유대교도들은 믿는 이들을 흔들어서, 주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려고 힘을 다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신언자들에게서 돌이켜서 우리의 관심을 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 장 2 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시고, 저는 그분의 처녀의 일부입니다. 저는 교리나 신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저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사역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유쾌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2 장, 487-4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에서 본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생활과 책임, 22 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2-53 장; 신약의 결론,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345 장

1/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4:11-12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4:13-16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14:1, 3, 31

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3 그러나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 10:24-25

24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25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계시에는 두 가지 주된 방면이 있다. 첫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이고, 둘째 방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교회생활에 부합하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영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4 장 12 절에서 바울은, 회중이나 모임의 건축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교회의 건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바울은 유기적인 몸의 건축, 곧 생명이 충만한 몸(1:23)의 건축에 대해 말한다.

모든 은사들, 곧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는 ...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고,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고 주어졌다. 은사들은 지체들이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린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 우리는 자신이 너무 작거나 약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믿는 이가 중요하고 몸의 지체로서 필요하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직접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4 장, 576 쪽, 2 장, 5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패하는 것들 안에 있는지 부패하지 않는 것들 안에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새로운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했는지에 관해 결산을 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법과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힘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에서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누린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 말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도 소생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건축하는 일을 함으로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지(엡 6:24)의 여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달려 있다. 다른 많은 것들이 부패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은 부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몸의 건축에는 세 가지 주요 범주의 일이 있다. 이 세 가지 주요 범주의 일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 가정 집회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종류의 수고의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고,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부패함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3 장, 573-574 쪽)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체계의 유기적인 봉사(벧전 2:5, 9)는 ...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롬 15:16). 그것에 이어서, 믿는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있다(요 21:15, 벧전 2:2, 롬 12:1). 또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 있다(엡 4:11-16).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신언하도록, 즉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전 14:1, 3-5, 12, 24, 31). ... 우리 모두는 온갖 지체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분투한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한다(골 1:28-29).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봉사이다. 이러한 봉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제사장 체계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믿는 이들에게 자양분을 주며, 모든 사람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신언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충분히 성장한 단계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것이다.(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비밀들, 3 장, 97-9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2-3 장

1/2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3:2, 8, 14-21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엡 6:24)라고 말하며 에베소서를 결론짓는다.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 머무르면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부패함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의 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감정 안에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떤 일에 반응하거나 어떤 일을 제안할 때 감정을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거나 교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생활에 합당한것들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4 장, 579-5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을 것이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엡 3:19 상).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단체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19 하절). 이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정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은 우리를 교회생활에 합당하게 만든다.

에베소서에 제시된 모든 영적인 체험들의 비결은 마지막 절에 있다. 에베소서 6 장 24 절에 따르면, ... 은혜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근원이다. 3 장에 따르면, 은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므로 측량할 수 없이 크다(2, 8 절). 이렇게 부족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열쇠는 16 절에 있다. 그 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사람 안에 있을 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리 잡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은혜의 모든 풍성을 주신다. 이렇게 부족하는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며, 새사람을 입고, 영 안에서 충만해지며, 군세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할 수 있다.

거듭남은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것이다. ...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기적적이면서도 매우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에베소서에 언급된 모든 것을 이렇게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매일 아침 부흥될 수 있고, 온종일 같은 방식으로 거듭해서 부흥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즉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즉시 우리는 깨끗하게 될것이고 부흥될 것이다. 즉시 부흥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날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께 다만 간단한 말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집회에 오면 넘쳐흐를 것이다. 즉,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요 7:38). ... 이것이 바로 교회생활, 부흥된 생활, 지속적으로 이기는 생활,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길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4 장, 583-5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함, 영문판, 4 장; 새 길 실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됨, 8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베이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의 교통, 영문판, 1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8 년, 1 권, 신약 사역과 새 길의 실행, 영문판, 2 장

2023. 1. 23 ~ 2023. 1. 29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7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7장, 76장

1/29 주일

아침의 누림

벧전 1:18-23

18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20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22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찬송: 546 (英) 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1 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내 사랑 없으니

모든 사랑은 주의 것이라

사랑으로 사네

아무 것 아닌 나를 비워서

주님 안에서 삼킨 바 되리.

2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

다른 것 없도다

강물이 흘러내림과 같은

주님 주신 축복

생명의 원천 넘치는 은혜

우리의 근원, 중심과 거처.